

내려야만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공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당시 그나마 조그만 목소리로 인해 사료가격 상승을 40여일간 지연시켜 농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현재 선박과 곡물가격이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는 사료공장도 무조건 적인 상승보다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모색하면서 약자인 사양가들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난가는 물론 양계산물 가격도 사료가격 인상분 만큼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피해는 결국 양계인들만 보게 된다. 사료가격은 과거에 너무나 많은 거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이를 하나씩 건고 양계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 축종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국내의 축산은 사료업계와 함께 붕괴되어 버린다. 전 축종과 연계하여 부당하게 오르고 있는 사료가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너무나 힘이 없는 우리 양계인들이여! 한 목소리를 갖고 함께 이 난국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의지를 모아준다면 사활을 걸고 필자가 앞장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양계**

## 새란업계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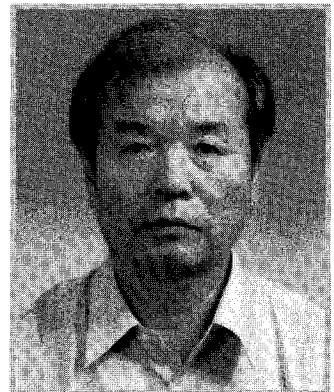
# 경영분석을 통한 철저한 농장관리 이루어져야

전 병 훈 대경농장 대표

2003년 12월말 우리 삶의 기반인 양계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다.

다행히도 계란시세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반전되었지만 반면에 사료가격 또한 폭등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가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란 생산비를 분석해 보면 사료비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단백질 수준을 사료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사료에 함유되어있는 조단백질이나 아미노산 함량을 기준으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닭



의 영양소 요구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닭은 기별로 영양소 필요량이 다른데 조 단백질은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인 22주에서 32주령에는 18g/수/일을 필요로 하고 45주에서 55주령에는 17g, 56주령 이후에는 16g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필자는 매일 매일 사료섭취량에 큰 관심을 갖고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

사실 농장에서 닭의 영양소 요구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사료량을 조절하여 급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생산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를 정확한 기준없이 선택한다면 결코 생산비의 절감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사료회사에서 주변 환경에 의하여 여러 차례 사료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진정 농가에 생산비 상승이라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올라가는 사료가를 농가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먼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는 방법과 생산성을 높여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나는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본다. 생산성의 향상이야 말로 생산자인 양계농가가 취해야 할 생존전략이라고 본다.

2002년 수당 계란 생산량은 274개이다. 이것에서 10% 향상 즉 수당 계란 생산량을 300개까지 끌어올린다면 생산비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온다.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오로지 단백질 함량으로만 사료선택을 하지 않고 나와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실력있는 사료회사 직원과 상의하여 내농장에 가장 적합한 사료를 선택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생산비를 낮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통하여 검증이 될 것인가? 과연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일까? 어떤 부문에 생산비를 절감해야 것일까?

나는 이러한 것들은 기록을 통해서만 검증이 된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사양가들을 보면 기록이 없이 양계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다. 기록이 없다면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정확한 생산성을 기록하고 수입과 지출 항목을 기록하여 결국 최종적으로는 농장의 경영분석을 통하여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를 따져 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철저히 대비한다면 현재와 같은 고가 사료시대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양계**

“

단백질 함량으로만 사료선택을 하지 않고 나와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실력있는 사료회사 직원과 상의하여 내농장에 가장 적합한 사료를 선택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생산비를 낮추어야만 한다.

”